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6권

사랑의 길을 걷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발자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찾아
높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상 곳곳의
모든 존재와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에게 다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의 길을 걷자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인 그녀의 사랑과 도움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과 노숙자, 에이즈와 암 연구 센터, 미국 참전 용사, 불우한 노인, 심신 장애인, 난민, 그리고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의 친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의 동물 역시 그녀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자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이 자상한 여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자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힘과 무한한 사랑, 창조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초기 시절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친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적십자사의 번역 일을 하며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픔과 고통이 모든 문화 속에,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책을 찾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2년이 걸린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 순례

마침내 그녀는 인도의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명상 기법인 관음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수행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큰 성취와 행복,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과 유럽·아시아·호주·아프리카·남미,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칭하이 스승에게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인도적인 도움을 베푸는 숭고한 귀감이 되고 있는 칭하이 스승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관음법문 명상을 통해 자생적인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창작 예술품(아름답고 정교한 등불과 음악, 시 등), 미적 감각이 뛰어난 보석·의상 디자인을 통해 당신이 접한 사람들과 문화의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95년, 대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런던·파리·밀라노·뉴욕을 순회하는 국제적인 패션쇼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원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의 자녀를 돕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정과 스승님의 꿈

칭하이 무상사는 그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많은 정부와 개인 단체들이 그 사심없는 지원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시민 인도주의상, 인류를 위한 뛰어난 공익 봉사상, 2006 구시 평화상, 로스 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은상 등등. 미국에서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와

이 호놀룰루 전임 시장인 프랭크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자의 빛이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게 꿈이 있었듯이 그녀 또한 그렇습니다.

“난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추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평화와 조화 속을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니다.

나는 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길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려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머리말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하실 때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구어체만 사용하십니다.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가피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범부의 두뇌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

1장

흑신통과 백신통

1987. 9. 20.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오늘은 흑신통과 백신통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통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통을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에게 신통이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나에게 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흑신통과 백신통은 가장 간단한 일인데 어떻게 나에게 없을 수 있겠어요? 내게는 무엇이든 다 있습니다. 흑신통·백신통도 있고, 붉은 신통, 녹색 신통도 있으며, 노란색·남색·회색·커피색 등 무슨 신통이든 다 지니고 있습니다. (대중 웃음) 배우고 싶거든 먼저 등록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신통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신통에 대해 듣고 싶습니까? (대중: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제 흑신통과 백신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어요.

흑신통도 본래는 백신통이었어요. 흑은 곧 백이고 백은 곧 흑이지요. 이것은 『금강경』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흑이 백일까요? 왜냐하면 이 힘도 창조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음陰은 양陽이고 양 또한 음입니다. 양이 없으면 음도 없으며, 음이 없으면 곧 양도 없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없으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지요.

흑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행으로 얻은 큰 힘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약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도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은 나의 스승이 나에게 안마 약을 마시게 했지요. 마시고 난 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계속 토하고 싶었지만 스승이 주신 것이라서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마셨지요. 마시자마자 곧 토했지만, 토하고는 또 삼키기를 연거푸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안마 약은 본래 안마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중독도 되지 않고요. 어떤 약은 외용으로 바를 수는 있지만 마시면 중독이 됩니다.

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백신통인 것이고, 나쁜 곳에 사용하면 흑신통인 것이지요. 신통도 이와 같이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강연을 들으려고 잇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옴) 넓은 바깥세상을 두고 놀러 가지도 않고 굳이 이곳에 와서 여럿이 꼭 끼어 앉아 강연을 들

으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정말 미쳤어요! 내가 흑신통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조종한 것이 아닐까요? (대중 웃음) 내가 여러분을 조종해서 무엇하겠어요? 골치거리만 더 늘어날 뿐이지요. 나는 지난밤 밤새도록 명상을 했기 때문에 낮에 잠깐 자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자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려고 왔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니 할 수 없이 내 잠을 희생해야 했지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일도 더 많아 집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흑신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흑신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늘 흑신통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흑신통을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어떤 사람: 모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어요. 여러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나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게다가 그 생각이 매우 강렬하고 힘이 있다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가 병에 걸렸으면 좋겠어. 나는 그가 어찌어찌 되길 바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꼭 병에 걸릴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꼭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다면, 그는 나중에 몸을 받아 이 세상에 돌아와서는 여러분을 해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신통입니다. 흑신통이 아니라면 무슨 신통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량무변(無量無邊)하며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했을 뿐인데도 그렇게 대단하지요. 좋은 일에 사용하든 나쁜 일에 사용하든 모두 대단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세상이 더더욱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할 겁니다. 이를테면 남편을 야단치고, 부인을 때리고, 나에게 따지는 일 등예요. (대중 웃음) 이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흑신통을 사용하지 말고 백신통만을 사용하세요.

흑신통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종파의 교주라도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남을 미워한다면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방금 내가 말했던 ‘인과응보(因果應報)’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이 병이 나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등의 저주를 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저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사윤회를 하고 이 고통스러운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돌고 도는 것은 바로 이 흑신통 때문입니다.

흑신통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해칩니다. 최면

술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더러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무엇을 하도록 시키면 여러분은 곧 그것을 하게 되지요. 자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이것 역시 흑신통입니다. 일반인들은 ‘최면술’이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그것을 ‘흑신통’이라고 부릅니다. 최면을 거는 사람이 곧 흑신통의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흑신통도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면술을 이용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일을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백신통과 흑신통은 모두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옴마니반메훔’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지요. 어떤 사람은 ‘옴마니반메훔’을 귀신이나 마귀를 쫓기 위해서, 또는 좋지 않은 힘이나 좋지 않은 운을 쫓아 버리기 위해서 외웁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것들은 모두 작은 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옴마니반메훔’을 외워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이 주문을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명백히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생각을 집중하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많건 적건 간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결코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이 주문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라마승들은 이미 오랫동안 주문을 외워 왔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늘 훈련시켰기 때문이지 별게 아님

니다. 그러나 조금은 쓸모가 있지요.

그렇지만 겨우 하루 동안 외웠다면 당연히 별 쓸모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말을 못하겠지만 날마다 조금씩 배우며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얼마 안 가서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막 포모사에 왔을 때는 중국어를 못했지만 날마다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헤엄칠 줄 모르겠지만 날마다 연습한다면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게 되죠.

흑신통과 백신통은 모두 우리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기원할 때 진정으로 성심성의껏 바란다면 그는 곧바로 즐겁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 자신의 인과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즐겁고 평안할 것입니다.

경전에도 써어 있습니다. 사람을 아흔아홉 명이나 죽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스승이 그를 속여서 “만일 그대가 정오가 되기 전에 백 명을 죽인다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믿고서 정말로 그렇게 했지요. 아흔아홉 명을 죽인 뒤 백 번째 되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때, 마침 자기 어머니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부처를 믿고 있었으며 이미 석가모니불에게 귀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이 나타나서 그녀를 구해 줬습니다. 그는 석가모니불도 죽이려고

했지만 석가모니불이 신통을 써서 그 역시도 구해 주었습니다.

부처의 신통과 방금 내가 말했던 흑·백신통은 다릅니다. 절대로 헛갈리지 마십시오. 신통이 없는 것이 곧 부처의 신통입니다. 부처 자신이 바로 신통이지요. 이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나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바로 병이 나았다거나 어려움이 해결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신통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또는 주문을 외거나 대비수大悲水를 사용하는 것은요? 아니면 향을 피우고 무언가를 써서 물에 넣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보았나요? (대중: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흑·백신통입니다. 내 것은 여러분이 오면 저절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통이지요. 원하는 대로 다 생깁니다. 은행을 털겠다는 것만 아니면요. (대중 웃음) 나는 그런 일은 돕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불이 그 사람을 구하고 나자 그는 매우 감동받아 바로 부처를 따라 출가해서는 날마다 부처와 함께하며 도를 배웠습니다. 하루는 그가 탁발을 하러 가다가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임신부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정말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임신부는 큰 소리로 간청을 했지요. “스님! 제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저와 제 아기가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바로 부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부처는 그에게 빨리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평안하게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기 모두가

즐겁고 평안하고 건강할 겁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으며, 나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꼭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부처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아흔아홉 명을 죽였던 것을 당신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말했지요.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그대는 나를 따라 출가해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대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부처가 말한 대로 그 임신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아기는 평안하게 태어났고, 크고 발그스레한 것이 아주 건강해 보였지요. 본래는 며칠 전부터 이미 진통이 있었지만 난산이다 보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의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아기가 태어난 것이지요.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은 모두 평안하고 즐거웠으며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 자신도 무척 기뻐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부처의 힘은 과거의 업장을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이 입문하고 난 뒤에는 과거의 업장은 모두 없어지고 현재의 업장과 정업定業만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도와 정업마저 씻어 버린다면 여러분은 입문할 때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요. 지금도 아직 인과가 있습니

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업이 있는 것입니다. 정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안배된 것이지요. 거기에 다시 날마다 짓는 새로운 업장이 더해져서 이번 생에 우리는 아주 많은 업장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이나 미생물이 죽습니다. 우리는 걸으면서도 아주 많은 미생물을 죽이고 풀을 벨 때도 역시 많은 중생을 죽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처럼 길을 걷거나 차를 운전할 때도 중생에게 많은 업장을 빚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이 몸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사중은(四重恩)이 있습니다. 한 찰나에 그것을 모두 다 깨닫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남아서 갚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서 갚아야 할까요? 신구의(身口意)(행동·말·생각)를 사용해서입니다. 일을 하거나 수행이나 명상을 해서 갚아야 하지요. 재가자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통해 업장을 갚습니다. 출가자는 수행의 힘을 사용해서 세상의 독한 기운을 풀어 나갑니다. 사회를 좀더 도덕적으로 만들고 세상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갈수록 어둡고 캄캄해지지 않도록, 갈수록 지옥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신身に 관련된 것입니다.

구口는 도덕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고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갈수록 즐겁고 도심(道心)이 생기도록, 또한 내면에 불성이 있으며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구口에 관한

것입니다.

의意는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통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즐겁고, 나라가 평화롭고, 세계가 평안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신구의를 가지고 중생에게 봉사하고 사중은에 보답한 뒤에야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이 가진 정업을 씻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바로 왕생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손을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손을 들) 당신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빛을 저서 빨리 도망가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나쁜 일을 많이 해서 현재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것이니 마땅히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운 것이니 여기에 사는 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부 다 그들이 나빠서라고 탓해선 안 되지요. 우리도 잘못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로 전생이나 더 이전 생에 그에게 좋지 않게 대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우리를 원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잘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이 증오의 기운을 풀어야만 합니다.

마땅히 ‘덕으로써 원한을 갚아야’ 하는 것이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증오의 기운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생겨버린 증오의 기운은 원래 곧바로 풀어 버릴 수가 없으며 풀려고 한

다면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지요. 하지만 상대를 죽인다고 해서 원한의 기운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 배로 커져서 갈수록 문제가 될 뿐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이나 다른 큰스승들도 모두 사람들에게 은혜로써 원한을 갚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라(Love your enemy).”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여러분이 만들어 낸 것이니까요. 알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했고, 노자는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 수 있다(『도덕경道德經』: 不出戶 知天下).”라고 했습니다. 이 뜻과 ‘일체유심조’는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해서 세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같기 때문에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이 나갔을 때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낮은 등급이지요.

여러분은 사람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들어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연을 들으러 몸소 오지 않고 혼만 빠져 나와 이곳에 와서 몰래 보고 듣습니다. 가끔 내 제자도 영혼만 나와서 이곳에 오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볼 수는 있지만 듣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직접 이곳에 와서 강연을 듣는데, 그는 너무 게으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겨 직접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오게 되면 나한테 배운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은 전에 일관도—貫道에 있었는데, 그때 자격이 이미 ‘전인 前人’ 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입문한 뒤 다시 오지 않았지요. 그렇

지만 그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이곳에 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지요. “대장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저녁에 몰래 와서 다른 사람의 집을 엿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와서 강연을 들으세요. 육신으로 오든 아스트랄체를 사용해서 들어오든 몰래 다니는 것은 모두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노자가 말했던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 수 있다.”의 상황은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영혼이 몸 밖을 나가는 것과 해탈은 다릅니다. 해탈은 삼계三界를 초월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마지막 신체, 가장 정교하고 세밀한 신체가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신체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마지막 신체는 영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은 여러 개의 신체 가운데 하나로서 이 육체보다 좀더 나올 뿐이고, 비교적 미세하여 보통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수행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칠禪七이나 선삼禪三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영혼만 빠져나와 이곳에 와서 나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얼 하겠다는 거죠? 물론 영혼이 빠져나와 이곳에 와도 되지만 너무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는 용신훈법龍神護法에게 두들겨 맞지요. 게다가 용신훈법은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나는 이곳에 계신 칭하이 무상사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용신훈법에게 겨우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습니

다.

그러나 내가 강연을 해도 그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수행해서 좀더 높이 가야지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요. 알겠습니까? 그는 비록 나를 볼 수 있고 동수들을 볼 수 있으며 무형의 중생도 볼 수 있지만 아직 높은 등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듣질 못합니다. 다만 내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하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지요. 그는 너무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무얼 실망했다는 거지요? 선칠에 오면 되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전에 무술(巫術)을 수행했던 탓에 지금도 완전히 그런 습관을 끊어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용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힘만 낭비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왕 영혼이 나오려면 마땅히 삼계를 벗어나 위로 올라가서 ‘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바세계에서 나는 어떤 불경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다만 세상경(世界經)만을 말할 수 있을 뿐 좋은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지요.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반드시 위에 가서 배워야만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여러분에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나 예의 도덕, 또는 서로서로 잘 대하라는 것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흠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살생하지 말라는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문제들이고 본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이 전부 잊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 없이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따분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등급의 세계에선 남녀의 구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서 이런 따분한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진리, 진정한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법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입문을 하고 스승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 영체가 밖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층의 신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한 층의 신체만을 벗어나 사바세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그냥 혼이 빠져나와서 노는 것일 뿐입니다. 포모사에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이 몇 주 동안 삼매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온종일 한곳에 앉아 있으니 그녀의 제자는 그녀가 왕성한 것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그녀의 몸이 아직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보고는 감히 매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두주가 지나 혼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비구니 스님은 “내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니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웠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혼이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몸 하나만 빠져나갔을 뿐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아직 큰 해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큰 해탈은 이 사바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가서 부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본래 흑신통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쩌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흑신통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돕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